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북한 미사일 더 우려”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도를 더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폭스 뉴스는 전날, 지난 16-19일 비컨리서치 등 2곳의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러분은 다음의 각각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느냐'며 제시한 8개 항목 중 '미사일 발사시도를 하는 북한'이란 항목에서 응답자의 68%가 우려한다고 대답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란 항목에서는 우려 응답률이 62%였다.

국경지대 병력 대거 증강으로 제기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미 외교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미국 국민은 북한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도 여겨진다. 북한 미사일을 우려한다는 응답자 중 31%는 '엄청나게 (extremely) 우려한다'고 했고, '매우 우려한다'고 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북한 미사일 우려 응답률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이고 남부 국경지대의 이민자(59%), 유권자 억압(58%), 유권자 사기

(53%) 항목보다도 더 높은 것이었다.

북한보다 우려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85%), 높은 범죄율(81%), 정치적 분열(78%) 등 8개 항목 중 3개였다.

이번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47%, '지지하지 않는다' 52%로 갈렸다. '2024년 대선이 오늘 치러질 경우 누구를 뽑겠느냐'는 문항에선 36%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했지만, 60%는 '다른 이에게 투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시사하는 여론의 흐름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즈음인 2018년 1월 조사 때 '다른 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56%였다. 당시 트럼프를 뽑겠다는 답변은 35%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취임 1년 후인 2010년 1월 조사 때 '다른 이에게 투표하겠다' 응답은 47%였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3%로 조사됐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와 외교 부문 업무 수행 지지율(각 41%)이 특히 낮았다.

미국,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속도

중국과 러시아의 잇단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로 다급해진 미국이 따라잡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월 3일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 대표들을 소집,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캐슬린 히스 국방부 부장관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관장하는 하이디 슈차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무기 개발 및 근대화에서 방위산업체와 관계를 강화하고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이번 회의가 미국의 계속되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시험 실패 이후 오스틴 장관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잡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AGM-183을 시험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해 올해 실전 배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로 방공무기체계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지구 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고, 현재의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

지 및 요격이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경제 대상으로 꼽는 중국의 경우 지난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긴장시켰다. 러시아는 2019년 '아방가르드'로 알려진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군 잠수함이 최초로 극초음속미사일 '치르콘'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여섯 번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역시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절박한 지경이 됐다. 그렇지만 국방부 고위층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발비용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비용에 관계없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1월 31일 ~ 2월 6일, 2022년

정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남자 길일 : 31, 1, 4, 5</p> <p>쥐</p> <p>당분간은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구의 덕을 좇아 자신의 처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변함없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권태로움을 수반하므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욕구불만이 생기기도 쉽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p>여자 길일 : 2, 3, 6</p> <p>말</p> <p>즐거워 한 주가 됩니다. 정성으로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행동하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정신적인 교분을 항상 두텁게 하고 아랫사람의 뜻을 잘 포용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뜻밖의 경사가 뒤따를 수 있지만 혹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코소</p> <p>높은 산이 비바람을 맞는 격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양</p> <p>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획하는 일은 앞뒤를 잘 살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일을 도모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교섭과 거래를 할 때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에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범</p> <p>지금 현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곧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좋은 운세이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앞길은 탄탄대로일 가능성이 큼니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원숭이</p> <p>분수를 지키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올바른 신념과 실행력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면 흥이 변하여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바른 마음으로 은인 자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실력을 쌓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윗사람이나 동료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토끼</p> <p>능력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윗사람이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설시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확장보다는 먼저 내부 관리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뜻밖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한 다음 거래에 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닭</p> <p>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공평무사하게 행동한다면 뜻밖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옳은 일을 성심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업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협력자를 구하면 더욱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용</p> <p>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개</p> <p>행동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복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많아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곳에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겸양의 도는 어디에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뱀</p> <p>좋은 때를 만났으니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면 아랫사람은 불안 없이 그를 따라 행동하게 되듯이, 뜻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면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주변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면 더욱 좋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구름 속에 있는 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이 차고 나면 겸손의 덕으로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사업은 기반을 다지고 내부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섭과 거래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전○애정△건강○</p>